

자료제공: 2023. 5. 30.(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(격리, 검사, 재택, 감염취약시설, 마스크)

코로나19대응지원과

(병상, 예방접종, 임시선별검사소)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: 5쪽

감염병관리과장	송 은 철	02-2133-7660
감염병대응팀장	유 효 연	02-2133-7669
담 당 자	최 병 아	02-2133-7691
담 당 자	하 현 숙	02-2133-7664
감염병관리팀장	이 승 찬	02-2133-7686
담 당 자	변 우 애	02-2133-9631
방역관리팀장	이 혁 수	02-2133-7662
담 당 자	유 경 숙	02-2133-7883
역학조사실장	이 휘 원	02-2133-7675
담 당 자	이 햇 님	02-2133-7687
코로나19대응지원과장	정 지 애	02-2133-9300
병상대응팀장	차 동 윤	02-2133-9301
담 당 자	정 유 진	02-2133-9304
담 당 자	김 영 혜	02-2133-9677
검사관리팀장	박 진 기	02-2133-9305
담 당 자	김 태 섭	02-2133-9308

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, 서울시 일상회복으로 전진

- 약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‘경계’로 하향,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
- 6.1. 기점 확진자 격리 7일 의무→5일 권고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유지
- 고위험군 지속 관리, 미래 감염병 대비 위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확충 추진

서울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(심각→경계) 조정(5.11.)에 따라 6.1. 기점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,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전진한다.

○ 세계보건기구(WHO)는 5.5.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.

- 이는 2020.1.24. 서울시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이래 약 3년 4개월만에 이룬 결과다.
- 서울시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되, 고위험군·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기존 ‘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’(3.29.)을 점검하고, 단계적(1~3단계) 전환을 조기 시행하는 ‘방역조치 전환 계획’을 마련했다.
- 이번 방역조치 전환 내용은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·2단계 조치를 통합해 ▲방역조치 분야(진단, 검사 등) ▲의료대응 분야(병상운영, 재택치료 등) ▲재정지원 분야(접종, 치료제 등) 같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방역 조치를 조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.

〈방역조치 분야: 확진자 격리, 7일 의무→ 5일 권고〉

- (격리)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.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7일을 권고한다.
- (마스크)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,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. 다만,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.
- (선제검사)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(PCR)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검사하는 것으로

완화하고,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대면면회 및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.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(간병인)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.

- (역학조사) 역학조사는 고위험군인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,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은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.
 - 감염취약시설 (①장기요양기관(요양병원, 요양원, 주간보호센터), ②정신건강시설, ③장애인시설))

- (선별진료소)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보건소,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, 현재 2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5.31.까지 운영한 후 중단될 예정이다.
 - 코로나19 및 호흡기 증상으로 검사 필요시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(2,272개소)에서 PCR 또는 RAT 검사와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다.
 -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차에 권고에서 이제는 종료한다.

〈의료대응 분야: 재택치료 지원 유지, 치료병상 운영〉

-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,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.

- (재택치료) 코로나 확진자의 진료와 치료는 검사·치료·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(현 2,272개소)을 중심으로 유지되며 원스톱진료기관 명단은 네이버·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 또한 격리참여자의 생활 안내, 의료이용방법, 생활지원금 등 문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행정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한다.

- (병상)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 치료병상 93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, 한시지정병상은 소아 등 특수병상 중심으로 18개 운영한다. 이 외에도 배정 절차 없이 자율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310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유지된다.

〈재정지원 분야: 접종, 입원치료비 무료 유지〉

- (치료비) 입원치료비, 치료제, 예방접종은 애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격리지원금(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)는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부담을 위해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,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는 현 체계가 유지된다.
- (접종) 특히 예방접종의 경우 현행 누구나 무료접종을 유지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한 연1회 정례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감염취약시설 및 건강 취약계층(60세 이상, 면역저하자 등) 접종을 집중 권고한다.
 - 현재 면역저하자 및 의료진에게 권고받은 65세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'23년 상반기 2가백신 추가접종이 진행(5.15~6.30)중이며, 전국민 대상 정례 접종은 하반기 진행된다.

〈미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〉

-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·사회·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, 서울시는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 현장대응체계를 정비 하고 대규모 유행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치료병상 확보, 역학조사관·방역대응인력 훈련 실시,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응 역량을 확충해 신속하게 신종감염병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- 고위험군, 감염에 취약한 시설*·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취약 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.

* ①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②정신건강증진시설, ③장애인복지시설

- 또한 신종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서울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주요 감염병별 전문 역학조사관이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와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.
-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대상도 역학조사관에서 보건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상시 대응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.
-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시민의 방역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했다. 서울시는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시민의 건강에 최우선을 두겠다.”며 “시민들은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,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등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”고 당부했다.